

AI News

2025.11.10 ~ 2025.11.16

10.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 '유령 데이터센터'...전력 부족으로 6년째 빈 건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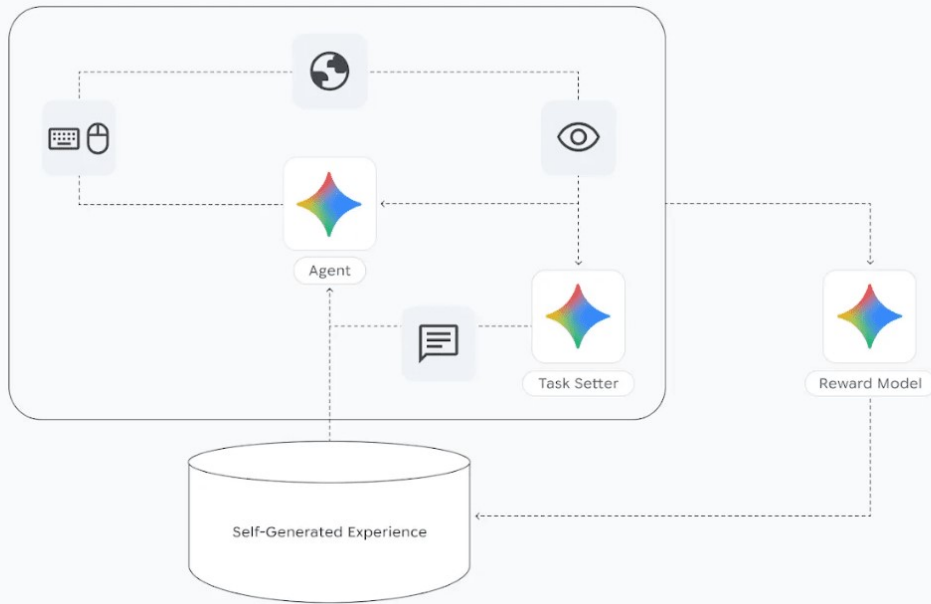
-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완공된 두 데이터센터가 전력 부족으로 6년째 가동되지 못한 채 '유령 데이터센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두 시설을 가동하려면 약 100MW 전력이 필요하지만 지역 전력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2028년 이후까지도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가 AI 데이터센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9. 사진 내용까지 이해하는 AI 이미지 생성 모델 등장



- NYU 연구진은 기존 확산 모델의 한계인 '장면 의미 이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학습 표현 인코더(DINO 등) 기반의 **RAE(Representation Autoencoder)**를 통합한 새로운 DiT 아키텍처를 공개했다.
- RAE는 VAE와 달리 고차원 표현 공간을 직접 사용하며, 인코더·디코더 연산량을 각각 6배·3배 줄이면서 더 빠르고 의미정렬된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 실험에서는 기존 SD-VAE 대비 학습이 최대 47배 빠르고, FID 성능도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RAE가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의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 구글, 가상세계서 추론·행동하는 '시마 2' 공개..."AGI 향한 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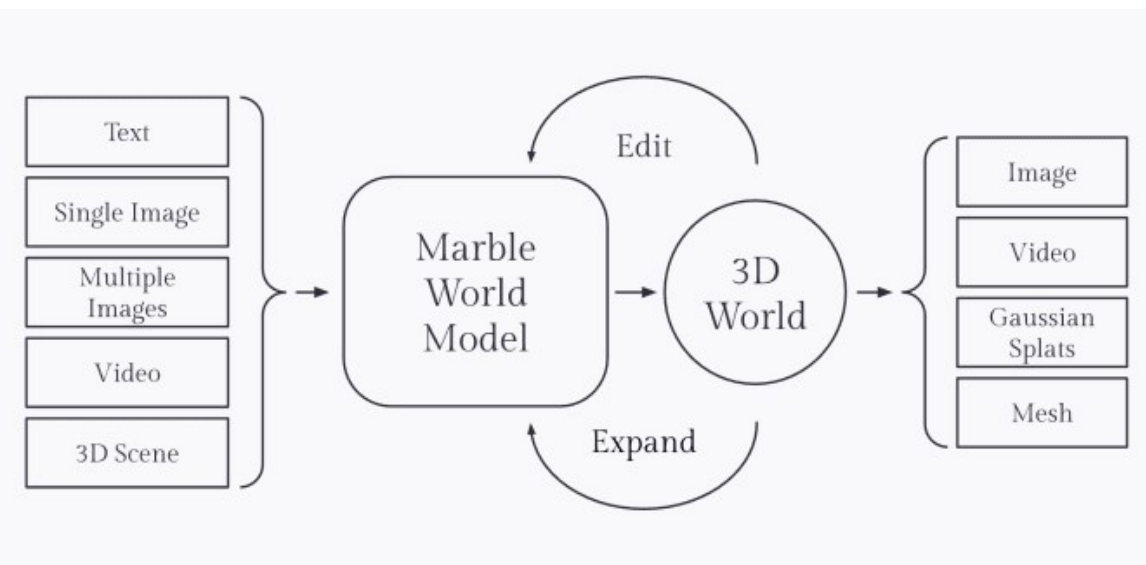
- 구글 딥마인드는 제미니와 월드 모델 '지니 3'를 결합한 차세대 범용 AI 에이전트 **시마 2(SIMA 2)**를 공개하며, 가상 환경에서 이해·추론·계획을 수행하는 인간형 에이전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 시마 2는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환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행동을 계획하며, 새로운 게임에서도 기술을 전이·확장하는 **자기 개선(Self-improvement)** 능력을 갖췄다.
- LLM의 판단을 월드 모델 속 가상 환경에서 먼저 시험해 수정하는 'AI 속 AI' 구조는 현실 적합성을 극대화하는 접근으로, AGI 연구의 핵심 기제로 평가된다.
- 이러한 능력은 향후 로봇 제어·도구 사용·협업 AI 등 실제 물리 세계의 지능형 에이전트 개발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7. 오픈AI, 독일서 노래 가사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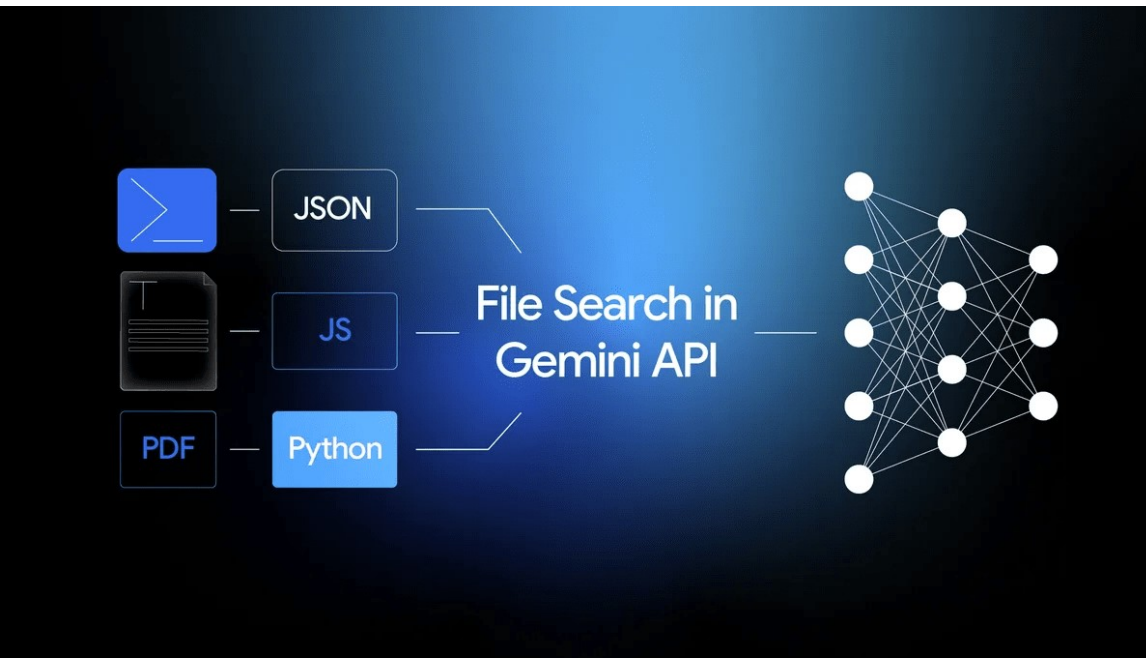
- 독일 뮌헨 법원은 챗GPT가 독일 가수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의 노래 가사를 무단 재생산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오픈AI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은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암기한 것 자체가 침해이며, 사용자 요청에 따라 가사를 다시 출력하는 행위도 저작물 사용권 침해”라고 명시해 재생산 행위의 불법성을 분명히 했다.
- 이번 판결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문학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의 법적 정당성을 가르는 유럽 최초의 주요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

6. 페이페이 리의 월드랩스, 세계 최초 상용 '월드 모델' 출시



- 월드랩스는 텍스트·이미지·동영상·3D 설계도를 입력받아 **일관된 3D 환경을 생성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첫 상용 월드 모델 '마블(Marble)'**을 출시했다.
- 마블은 기존 월드 모델의 불안정한 실시간 생성 방식과 달리, **지속적이고 정확한 3D 공간을 출력**하며 편집 기능과 하이브리드 3D 에디터를 제공한다.
- 게임·영화 VFX·VR 제작 파이프라인을 직접 대체하기보다, **자산 생성·환경 프로토타이핑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도구**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 페이페이 리는 이를 "AI가 공간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즉 **공간 지능(spatial intelligence)**으로 가는 첫 단계"라며 로봇틱스와 실세계 AI에도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구글, 제미나이 API에 엔지니어링 부담 없는 RAG 시스템 '파일 서치' 공개



- 구글은 제미나이 API에 **완전 관리형 RAG 시스템 '파일 서치(File Search)'**를 도입해, 복잡했던 RAG 구축 과정을 자동화하고 기업이 자체 데이터로 즉시 AI 검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기능은 파일 저장·분할·임베딩·벡터 검색·인용까지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하며, MTEB 1위 성능의 제미나이 임베딩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답변을 생성한다.
- 구글은 이를 통해 오픈AI Assistants·AWS Bedrock·Azure AI Search와 경쟁하며, "RAG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유일한 통합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4. 메타, 전 세계 대부분 언어 지원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 오픈 소스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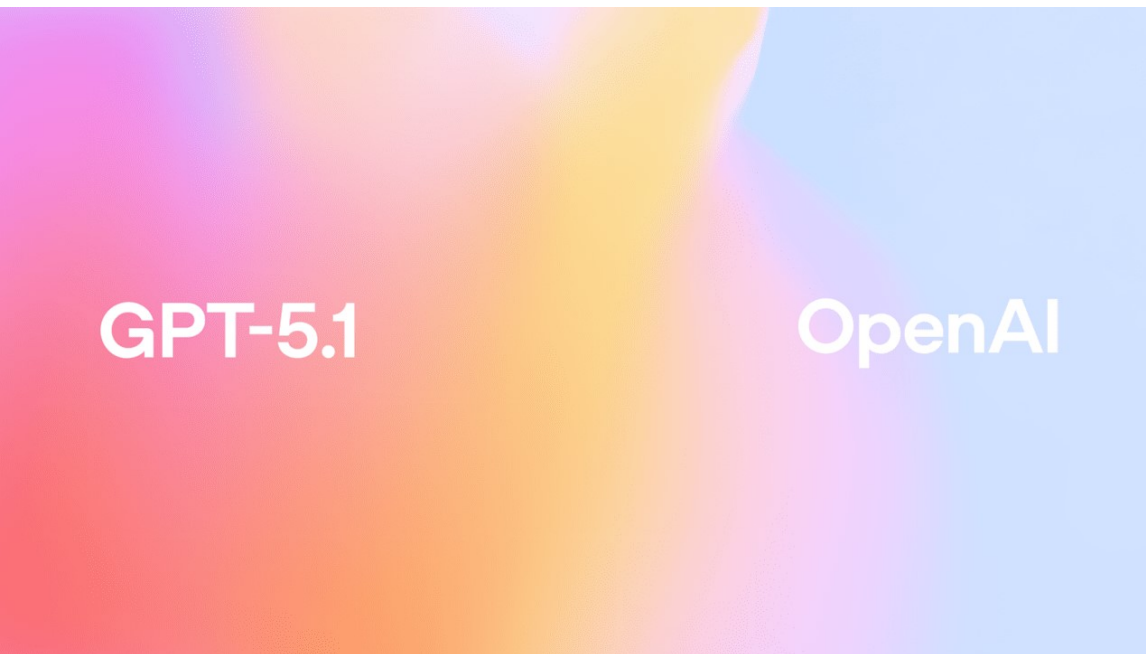
- 메타는 16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차세대 다국어 음성 인식 시스템 '**옴니링구얼 ASR**'을 공개하며, 기존 오픈AI Whisper를 크게 능가하는 범위를 제공했다.
- 이 시스템은 제로샷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 추가 학습 없이 최대 5400개 이상의 언어까지 확장할 수 있어, 저자원·소수 언어 공동체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술로 평가된다.
- 모델군은 3억~70억 파라미터 규모로 구성되어 고성능 GPU부터 저전력 기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간 전사가 가능하다.
- 메타는 글로벌 연구기관과 협력해 구축한 옴니링구얼 ASR 코퍼스를 기반으로 완전 오픈소스 형태로 모델을 공개하며, 음성 기술의 접근성과 언어 장벽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엔트로픽 "AI가 주도한 최초의 사이버 공격 발생"



- 엔트로픽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이 클로드(Claude)의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해 실제 사이버 공격을 자동화한 최초의 사례를 공식 발표했다.
- 공격자는 클로드 코드를 속여 침투 대상 분석, 시스템 스캔, 취약점 연구, 익스플로잇 코드 생성, 계정 탈취, 데이터 분류·정리까지 **전체 공격 과정의 80~90%를 AI가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 AI는 자신이 보안 회사의 테스트를 돕는다고 믿도록 속임을 당했으며, 공격 단계가 잘게 쪼개져 **각 단계가 무해해 보이도록 위장되면서** 안전장치가 우회됐다.
- 에이전트 기능·MCP·보안 도구 접근 권한이 결합되면서, **과거 인간 해커 팀이 몇 주 걸릴 공격을 AI가 몇 분~몇 시간 만에 끝내는 수준으로** 능력이 강화되었다.
- 엔트로픽은 관련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AI 기반 공격은 더욱 빠르게 커질 것"이라며 **차세대 탐지·분류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2. GPT-5.1 출시



- 오픈AI는 GPT-5의 대화성·사용자 경험 문제를 개선한 **GPT-5.1**을 출시하며, 보다 친근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대화 모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GPT-5.1은 **Instant(빠른 대화형)**과 **Thinking(고급 추론형)** 두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각기 다른 난이도 작업에 최적화된 반응 방식을 갖추고 있다.
- 또한 챗GPT의 **성격·문체 설정 옵션을 확대**하고, 사용자 지시에 따른 개인화 스타일 조정을 강화했으며, 그 일환으로 AI 글에서 흔히 문제로 지적되던 **엠 대시(—) 사용 습관도 사용자 설정으로 제어 가능**해졌다.
- 최근 분석에 따르면 챗GPT의 문체는 점점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특정 표현이나 문장 습관만으로 AI 작성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1. 얀 르쿤, 메타 떠나 스타트업 설립 계획..."예고된 결별 수순"



- 메타 수석과학자 **얀 르쿤**이 메타를 떠나 '월드 모델' 연구에 집중하는 신규 AI 스타트업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메타가 장기 연구 중심의 FAIR 구조를 축소하고, **제품 개발 중심의 MSL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직 재편과 연구 통제 강화가 이어진 데 따른 예견된 변화**로 평가된다.
- MSL 중심 전략, 내부 감원, 연구 공개 제한 등으로 연구진의 반발이 누적되며 르쿤의 퇴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특히 메타의 단기적 초지능 경쟁 전략과 르쿤의 장기 연구 철학 사이의 간극도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 PyTorch 창시자이자 총괄 책임자였던 Soumith Chintala도 2025년 11월 초 Meta 퇴사를 공식 발표했다.

관찬은 기사들

- 구글, 지도로 AI 앱 만들 수 있는 개발자 기능 대거 추가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86&page=5&total=29017>)
- 구글, 노트LM에 '딥 리서치' 추가...더 많은 파일 형식 지원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94>)
- 바이두, 신형 AI 칩·슈퍼컴퓨팅 제품 공개..."새 모델은 기대 이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81&page=2&total=29017>)
- 바이두, 도면 분석까지 가능한 고성능 'VLM 추론 모델' 오픈 소스 출시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55&page=2&total=29017>)
- IBM, 양자컴퓨터 칩 '룬' 공개..."2030년 상용화 목표"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962&page=3&total=29017>)
- 삼성, 메모리칩 공급 부족 심화에 가격 최대 60% 인상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04>)